

KTX 호남선 개통 한달도 안 돼... 광주 송정역 일대 불법 주정차 '몸살'

주차장 400면... 턱없이 부족
시장·주책가 골목까지 확장

호남선 KTX가 지난 2일 개통된 이후 광주 송정역 주변 일대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매일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다. 광주송정역 주차장은 오전 10시가 지나면 이미 '만차'가 되기 일쑤고,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이용객들은 역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골목에 가까스로 주차한 뒤 열차를 놓칠새라 허겁지겁 달리는 일도 다반사다.

며칠간 차를 빼주지 못할 상황이어서 민폐를 끼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주차대란'은 이용객들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근 상인들은 '주차대란'의 직격탄을 맞았다. 송정역에서 송정사당 병원까지 550m 구간 왕복 6차선 도로로는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양쪽 1개 차선은 불법 주차된 차량만 72대에 달했고, 그 옆을 지나던 차들도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가다 서다를 반복, 차량 정체는 물론 상가를 가로 막아 상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불법 주차는 큰 길뿐만 아니라 주변 주택가와 상가의 좁은 길목까지 이어졌다. 송정역 건너편 종로약국 골목은 50m 구간에만 차량 10대가 멈춰서 있었다. 일방통행인 영광동 1km 구간만 하더라도 100대가 넘는 차량이 상가입구를 가로막은 상태였다. 주변 상인들은 "호남선이 개통된 뒤로 주차공간 찾는 사람들이 길을 잃고 역주행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또 광주송정역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차들은 시내 방향으로 어쩔 수 없이 U턴을 해야하는데, 반대편 차선에 길게 늘어진 택시들에 가로막혀 쉽사리 차를 돌릴 수도 없었다. 택시 승강장은 열차가 들어오는 때 시작마다 적게는 30대에서 많게는 60대까지 200m 구간 한쪽 차선을 점유한 상태로, U턴 구역과 맞물리면 서 극심한 교통정체에 한몫 하고 있었다.

광산구정에 따르면 광주송정역 주차장의 주차 면수는 총 400면, 가장 가까운 민간 주차장도 20면 수준으로 역에서 500m 떨어진 광산구청 공용주차장은 2곳은 각 70면과 62면에 불과, 인근 매일 시장도 28면이다. 반경 500m 이내에 8개의 공용·시설 주차장엔 811대가 수용 가능하다. 반면, 송정역 하루 방문객 1만~1만5000명으로 수요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면서 이용객들은 물론이고 인근 상인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운전자 신모(49)씨는 "안전공행에 가는 열차를 타려고 혹은 사나 30분이나 일찍 도착했는데도 마땅히 주차할 곳을 찾지 못했다"며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이 좁은 골목길에 차를 세워놓긴 했는데, 미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수상 훈련 장교 2명 의식불명 ▶6면

금호산업 본입찰... 호반, 6007억 단독 응찰

예산보다 낮은 금액... 우선매수권 보유 박삼구 회장 유리해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나 유찰이나... 채권단 결정에 촉각

호반건설이 금호산업 인수 응찰액으로 6007억원을 채권단에 제안했다. 당초 금융업계에서 예상했던 7000억~8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기사 14면〉

28일 금융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 매각 주관사인 KDB산업은행이 이날 오후 3시 본입찰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호반건설만 단독 응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 적격자로 선정됐던 MBK파트너스, IBKS-케이스톤 컨소시엄, IMM PE, 자베즈파트너스 등 네 곳의 사모펀드는 결국 응찰을 포기했다.

호반건설은 금호산업 채권단이 매각하

려는 금호산업 보통주 1943만4897주에 대해 주당 3만9000원으로 평가, 6007억원을 제시했다. 금호산업의 이날 종가(2만2850원)보다 35%가량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가격이다.

그동안 금융계와 시장에서는 금호산업의 가치를 7000~8000억원으로 평가해왔다. 호반건설 역시 비슷한 가격대를 써낼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그러나 실제 호반건설이 쓴 가격은 더 낮은 금액이다. 관건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호반건설의 제안을 받아들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냐는 것이다.

채권단은 이날 오후 7시 채권단 운영위원회 열고 호반건설의 인수가격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동안 채권단은

금호산업 매각 향후 절차

- 4월28일 금호산업 입찰 접수 마감 - 호반건설 단독응찰 선정 여부 결정
- 채권단협의회, 호반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여부 결정
- 1주 내 채권단과 우선협상대상자 MOU 체결, 체결 내용을 우선매수권자(박삼구 회장)에게 통보
- 1달 내 (6월 중순) 박삼구 회장,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결정
- 2~3주 내 금호산업 매수자 실사
- 7월 주식매매계약서 체결, 공정위 기업결합신고
- 8월 금호산업 매각 종료

입찰 하한액으로 6000억~7000억원을 거론해 온 만큼, 수용 가능성은 충분히 보인다

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채권단의 보유 지분 중 '50%+1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에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최고 1조원까지 거론됐던 금호산업 인수금액이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절반 가까이 낮아지는 만큼, 자금 동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채권단이 호반건설의 단독 입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매각작업은 새롭게 진행된다. 유찰 시에는 공개매각이 아닌 프라이빗 딜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앞서 금호산업 입찰가가 채권단의 예상 금액보다 낮게 제시될 경우 직접 박 회장에게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박 회장의 금호산업 인수는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28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사진 오른쪽). 재판이 끝난 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세월호 항소심, 이준석 선장에 '살인죄' 적용

광주고법, 무기징역 선고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에 대해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됐다.

이 선장은 승객들이 익사할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골든 타임'에 어떠한 구조 조치나 퇴선방송 없이 먼저 탈출한 점 등을 들어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가 있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다. 살인죄가 인정되면서 형량도 1심(징역 36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1심과 달리,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 등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형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이 선장 등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與野 겹으로 "2+a" ...속으로 "전패는 면해야"

오늘 국회의원 재·보선... 오후 8시 투표 마감·11시계 당락 윤곽

4·29 재·보궐선거 투표가 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재보선은 ▲광주 서구를 ▲서울 관악구를 ▲인천 서구·강화군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등 국회의원 선거구 4곳과 광역의원 1곳(강원 양구군), 곡성군 가 선거구를 비롯한 기초의원 선거구 7곳 등 총 12곳에서 치러진다.

투표는 광주 서구를 선거구인 상무2동 시영종합사회복지관 등 34곳을 비롯, 재·보궐선거 투표소 309곳에서 진행된다.

이번 재보선은 선거 초반 선거 야권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여권의 어부지리 승리가 예측되기도 했으나 선거 중반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터지면서 선거 막바지 혼전 양상이 펼쳐졌다. 광주 서구를 보선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8일 자정까지 빚속 집중 유세와 골목 유세 등을 펼치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현재까지는 여야 모두 '2+a'(두 명 이상 당선)를 희망하면서도 전패 위기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어? 성경이 읽어지네!
4월 3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10주 과정)
구약 과정 개강 062) 605-1112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15th 가슴으로 하나되는 아리따운 여정

2015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광주 상무시민공원 6월 14일(일)

종 목 10km / 5km
참 가 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기념품 기능성 마라톤 티셔츠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 9744
참가신청 선착순 접수 www.pinkcampaign.com
검색창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을 입력하세요.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후원 :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청, KBS광주방송총국, 광주MBC, kbc광주방송, 광주일보, 전남일보,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협찬 : 해라, 아리따움, 르까프, 55CHU